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정상화 질주

국내 유일 공공체육시설 수지 균형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 62% 개최

국내 대규모 공공체육시설로는 유일하게 수지 균형을 맞춘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최근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올해 목표 운영일수를 270일로 잡고, 국내 최대 스피드축제인 '전남GT',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세계 41개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서킷) 중 하나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축구장의 170배에 달하는 180만㎡, 총 길이 5.6km로 세계 8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길어 세계 정상급 시설을 자랑한다. 월드컵경

기장, 야구장 등 1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사후 활용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적자 운영되며 일부 시설이 소평물 등 시설 임대 수입으로 흑자 운영되고 있지만,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유일하게 설립목적에 부합한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관련 용도로 연간 34억여원의 수입을 올려 운영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60일을 휴관하고 2021년 38일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일수를 축소했다. 안전한 경주장 운영을 위해 출입 인원도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으로 최소화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 평균 280일이던 경주장 운영일수가 241일까지 축소되고, 12만~14만 명이던 방문객도 4만~5만 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일상회복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의 96%인 총 270일 운영일수를 목표로 상반기는 128일이 가동됐다. 하반기에도 주말 일대다 이미 예약이 확정돼 주중 임대만 가능하다.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가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상반기에 8회 열렸고, 하반기에 16회가 예정됐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나벌'을 개최했다. 오는 10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 스피드 축제인 '전남GT'가 전남도 주최로 열린다.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부터 아마추어의 입문기회를 제공하는 'KIC-CUP 투어링카'까지 모터스포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갖춘 자동차 복합문화단지로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카트장과 캠프장을 중심으로 가상체험관, 드라이빙장, 키즈드라이빙체험장, 드론연습장, 네트어드벤처,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및 편의 시설이 오는 10월 개장 예정이다. 일부 시설은 이미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월 전통주에 함평 천지향 복분자술

여름 보양식에 곁들이기 좋은 술



전남도가 여름철 보양식에 곁들이기 좋은 함평 나비골농협 레드마운틴의 '천지향 복분자술'을 7월 대표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복분자의 제철은 6~8월로 지양 강장에 좋다고 알려져 특히 여름철에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분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안토시아닌과 함께 칼슘, 철, 엽산, 아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천지향 복분자술(알코올 15%)은 물 맑고 깨끗한 청정 함평에 위치한 나비골농협에서 엄선한 복분자를 2년 이상 발효·숙성해 만든 술이다. 술 색깔이 건포도 같은 짙은 자색을 띠지만 투명한 느낌이 있어 보는 재미가 있다. 복분자의 향이 강하고 맛도 과일주스와 같이 부드럽러워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즐길 수 있다.

천지향 복분자술은 전남 대표 명품 술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2012~2013년 2년 연속 장려상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우수상을 비롯해 다섯 차례나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 해안선 마을 숨은 보석 찾는다

행정안전부 디지털 뉴딜 사업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공모 선정

전남관광재단이 전남 해안선 마을의 숨은 보석을 찾아 영광에서 영광까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26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해안선 마을 관광자원 DB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 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이후 정정 해양관광지를 찾는 소규모 관광객에게 전남의 덜 알려진 해안 관광자원을 알리고, 숨겨져 있던 자원을 활용해 전남 여행상품 개발에 활용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데이터 공급업체(나주시 소재 IT업체)와 3자간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청년 인턴을 채용하여 정부가 관광코스로 개발한 전남지역 서해안길, 남파랑길, 해안누리길 주변을 비롯한 전남 주요 섬과 16개 시·군(나주,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제외) 해안 인접마을 119개 읍·면(혹은 동)의 595개 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수집 데이터는 해안선 인근 마을의 관광자원, 숙박 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다.

공공정보, 검색정보, 위성사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조사, 드론 항공촬영 등 현장 실측조사를 병행해 1200개 자원을 모두 조사할 예정으로, 500개 이상의 숨은 자원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전남의 중요한 자원인 해양 관광자원 DB를 구축함으로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름다운 해안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향후 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폭염재난 대응 영상 점검회의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5일 도 재난대응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재난 대응 추진상황 영상 점검회의'에서 전남도 주요 대응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운영 '빛가람 치유의 숲' 인기

수목유전자원 활용 7개 프로그램 상반기 12만8000여명 찾아 힐링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운영하는 '빛가람 치유의 숲'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처를 찾는 방문객에게 힐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치유의 숲 방문객은 전년 상반기 8만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 12만8000여명으로 50% 이상 늘었다. 녹음이 짙어가는 최근 주말에는 하루 2000여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들러 심신 치유와 휴식을 만끽하고

있다. 치유의 숲은 지난 1975년 청사 이전 후 심은 수목유전자원으로 이뤄졌다. 광주에서 30분,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도시민의 접근성이 좋다. 산림치유센터(2층·832㎡), 치유숲길(1.5km) 등 치유시설과 가족·청소년·직장인 등 대상별 7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갖춰 사전예약자에 한해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15인 이내로 평일과 주말 오전·오후 각 2시간씩 운영되며, 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프로그램은 오감을 이용하는 ▲ 숲속 기혈순환체조 ▲ 맨발 즐기기 ▲ 해먹체험

▲ 족욕체험 ▲ 이완휴식 ▲ 차 마시기 ▲ 상임볼코시차임(원통형 차임벨 약기) 등을 이용한 소리치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숲을 오롯이 느끼고 즐긴 후, 일상에 복귀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자세 교정, 스트레칭 완화 등 건강 관리법을 터득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산림치유센터 건강측정실에는 뇌파측정기, 스트레칭측정기, 인바디 체지방·체성분 측정기, 체질량지수(BMI) 측정기, 혈압계 등 각종 건강측정 장비가 마련됐다. 개인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름방학 맞은 초·중·고생 드론 체험 오세요

전남농업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드론 체험교실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항훈 드로니어 대표가 드론의 개념과 역사를 알기 쉽게 강의한 뒤 조종법, 비행 실습, 장애물 통과하기 게임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5일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드론체험교실 수료증이 발급된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농업박물관 드론체험교실은 큰 인기를 끌며 해마다 조기 마감됐으며 교육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매년 1회 실시하던 교육을 올해는 2회로 늘렸다.

모집인원은 대회 선착순 2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12일까지다.

임영호 관장은 "농업박물관에서 늘면서 배우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드론을 통해 발전하는 농업 기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 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p> <p>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p> <p>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p> <p>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p> <p>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p> <p>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p> <p>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p>
		<p>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p> <p>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p> <p>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p> <p>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p>

010-6670-9800 (062-382-5500)